



이사야서에 나타난 야웨의 주권과 고이

김래용(협성대)

1. 서론

스미스(Gary V. Smith)는 이사야의 예언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주전 8세기, 포로기, 포로기 이후)과 결부된다는 점, 기존 이사야의 선포에 후대의 편집적 추가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조화론이나 환원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이사야서 전체의 통일된 신학적 주제를 제시하려는 시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신학적 주제를 찾으면 그것은 ‘야웨에 대한 신뢰’라고 보았다.¹ 오스왈트(John Oswalt)는 특별히 이사야 7-39장은 신뢰의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야웨와 열방을 대조하는 전개 방식을 통해 야웨만이 신뢰의 대상임

1 게리 스미스, 『이사야 2』 (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79-90. 원제는 Gary V. Smith, *Isaiah* 40-66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09).

을 강조하며, 이 단락의 시작(사 7-12장)과 끝(사 36-39장)에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² 그리고 그는 이사야 40-55장의 근본적인 핵심은 회복의 가능성인데,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지 또는 의도가 있는지에 관심하고,³ 이사야 56-66장은 야웨의 능력과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대조되는 주제를 강조한다고 보았다.⁴ 한마디로 이사야서가 야웨 신뢰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에 관심하고 있다고 보았다.

스위니(Marvin A. Sweeney)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는 야웨의 주권을 통일된 신학적 주제로 보았다.⁵ 그는 이사야서가 크게는 야웨를 우주의 주권자(the sovereign of the universe)로 묘사하고, 세부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묘사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사야 1-33장은 시온에서의 세계적 주권을 위한 ‘야웨의 계획에 관한 예언적 선포’를 다루고, 이사야 34-66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세계적 주권을 위한 ‘야웨 계획의 성취에 관한 예언적 선포’를 다룬다고 보았다.⁶ 와츠(John D. W. Watts)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사야서의 통일된 신학적 주제를 ‘야웨께서 열방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류의 진로를 결정하는 역사의 주님’으로 보았다.⁷ 빌트베르거(Hans Wildberger)도 이사야서의 신학적 주제 중의 하나가 ‘야웨, 세상 열방

2 존 오스왈트, 「이사야 I」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82-85. 원제는 Joh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3 존 오스왈트, 「이사야 II」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6-28. 원제는 Joh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4 존 오스왈트, *읽기* (2015), 87.

5 Marvin A. Sweeney, *Isaiah 40-66*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17.

6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비극이 일어난 것은 온 누리를 다스리는 야웨의 주권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야웨가 의도한 계획의 결과”라고 보았다. 마빈 A. 스위니, 「예언서」 (홍국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65. 원제는 Marvin A. Sweeney,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유사한 주장을 위해 홍국평,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37-38; 홍성혁, “이사야 6장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구약논단」 31집 (2009년 3월), 137-154 참조.

7 존 D. W. 와츠, 「이사야 1-33」 (강철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2), 73. 원제는 John D. W. Watts, *Isaiah 1-33*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5).

의 주'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야웨가 확실하게 역사의 주로 묘사되고, 모든 열방의 통치자로 강조되고 있지만, 그러나 야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⁸

이처럼 야웨의 주권과 관련된 주제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사야 1-66장이 주전 8세기(사 1-39장)와 포로기(사 40-55장)와 포로기 이후(사 56-66장)의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사야서가 공통으로 야웨 신의 중요성과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따라서 본 논문은 이사야서에서 야웨의 주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각각의 예언서에서 세 가지의 요소와 관련되어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사야 1-39장에서는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산헤립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위기의 상황, '그날에' (בַּיּוֹם הַהוּא)라는 표현,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들과 어우러져, 이사야 40-55장에서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위기 상황, '새 일' (יּוֹם הַחֲדָשִׁים)이라는 표현,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들과 어우러져, 마지막으로 이사야 56-66장에서는 페르시아 지배라는 역사적 위기 상황, '새 하늘과 새 땅' (שָׁמַיִם הַחֲדָשִׁים וְאָרֶץ הַחֲדָשָׁה)이라는 표현,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들과 어우러져 강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각각의 예언서가 현재의 역사적 위기 상황과 미래의 비전 제시를 기술하면서 야웨의 주권을 언급하는데, 여기에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추가하여 야웨를 우주의 주권자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8 Hans Wildberger, *Isaiah 28-39*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638-642.

9 김회권은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 "이사야 1-3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과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이사야 40-55장과 56-66장의 핵심은 "은 세계 열방의 통치자인 야웨 하나님의 세계변혁이며 세계구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김회권,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47; 김회권, 「이사야: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이사야 40-66장」 (서울: 복 있는 사람, 2020), 33 참조.

2. 아웨의 주권과 고이

1) 이사야 1-39장에 나타난 아웨의 주권과 고이

이사야 1-39장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¹⁰ 이 단락을 정확하게 시대적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이사야 1-12장은 주전 734-733년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관련되며(12개의 장), 이사야 13-27장은 열방의 심판과 관련되고, 이사야 28-39장은 주전 705-701년 앗수르에 의한 위기의 상황과 관련된다(12개의 장).¹¹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아웨의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강조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이사야 1-12장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의 서론, 혹은 이사야 1-39장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다.¹² 그러나 이사야 13-23장에 열방에 대한 신탁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사야 1장은 이사야 1-12장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사야 1장은 백성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시작한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사 1:2b).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3).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사

10 Christopher R. Seitz, *Isaiah 1-39*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15-18 참조. 학자들은 이사야 1-39장에서 이사야 24-27장과 34-35장을 따로 분리하여, 전자를 ‘이사야의 묵시록’으로, 후자를 ‘이사야의 소묵시록’으로 다루기도 한다. 홍국평, 윗글, 26-28 참조.

11 김회권은 이사야 1-39장에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주전 734-733년), 아스돗이 주도한 반앗수르 반역 전쟁(주전 714-711년), 히스기야가 주도한 반앗수르 봉기(주전 705-701년)가 나타나는데, 이사야 7-12장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이사야 13-27장은 열방의 심판을 다루며, 이사야 28-33장과 36-39장은 주전 705-701년의 반앗수르 봉기와 산헤립의 침략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았다. 김회권, 윗글 (2006), 46-55 참조.

12 윗글, 46-47.

1:4b). 관계의 파기를 의미하는 단어들(‘거역하다’,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버리다’, ‘만홀히 여기다’, ‘물러가다’)과 관계의 대상을 의미하는 단어들(‘나를’, ‘나의 백성’, ‘임자’, ‘주인의 구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백성들과 야웨 사이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음을 강조한다. 게다가 이사야 1장은 이들을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사 1:4a)라고 평가한다. 나라(גוֹי) → 백성(עַם) → 종자(זָרַע) → 자식(בְּנֵי)이라는 점강적 표현을 사용해 모든 나라와 백성이 자지손손 최악 된 삶을 살았음을 강조한다.¹³ גוֹי(고이/나라)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함축하고, עַם(암/백성)은 혈연관계의 백성을 함축한다는 점에서¹⁴ 백성들의 국내외적인 관계 속에서의 죄악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이사야 2-5장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이것에 대한 답을 준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사 2:22a).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사 3:1-3).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

13 4개의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에드워드 J. 영, 「이사야서 주석 I」 (장도선·정일오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68-71. 원제는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1*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65); Hans Wildberger, *Isaiah 1-1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22-23 참조.

14 일반적으로 고이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강조할 때 사용되고, 암은 친족(kinship)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 E. J. Hamlin, “Nations”, George Arthur Buttrick(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515-523; D. I. Block, “Nations”, Geoffrey W. Bromiley et al. (ed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3*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492-496; Ronald E. Clements, “גוֹי gōi”,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7), 426-433; E. Lipiński, “עַם 'am”,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163-177 참조.

라” (사 5:24b). 이러한 표현들은 백성들이 야웨를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을 철저히 의지했다는 사실을 부각한다. 특별히 위에 언급된 13개의 피조물은 물질(양식, 물), 군사(용사, 전사, 오십부장), 정치와 사회(재판관, 장로, 귀인, 모사), 종교(선지자,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 경제(정교한 장인)와 관련된 것으로¹⁵ 백성들이 야웨만 빼고 모든 것들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백성들이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야웨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국내적인 것과 관련된다.

이제 이사야 7:9장은 이러한 주제를 국외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지적한다. 특히 주전 734-733년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관련하여 야웨 신뢰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시리아-에브라임 동맹군의 남유다 침략 상황에서 야웨의 신뢰 문제는 더 강조되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사 7:4a).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 7:9).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 8:13).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야웨 신뢰의 중요성과 관련된다. ‘삼가며 조용하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만군의 야웨 그를 거룩하다 하라’는 표현들은 야웨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삼가라는 말이다.¹⁶ 당시의 강대국 앗수르나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적인 행태를 금하라는 말이다. 특별히 ‘그가 너희의 두려워할 자다’와 ‘그가 너희의 무서워할 자다’라는 유사한 표현의 반복은 야웨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야웨 신뢰의 근거가 된다. ‘야웨를 신뢰하고,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야웨의 신뢰와 야웨의 주권의 문제는 ‘그날에’(אִתְּךָ יוֹם)라는 용어와 어

15 송병현, 『엑스포지벤텐터리 이사야 I』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192-198 참조.

16 Hans Wildberger, 『잇글』 (1991), 298 참조.

우려져 이사야 10-12장에서 계속 강조된다. 특별히 ‘고이’라는 단어 혹은 ‘고이와 관련된 표현’이 추가되어 야웨의 주권의 범위가 온 세상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4개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사 10:20-21; 11:10, 11-16; 12:1-6), 독특하게도 4개의 다른 대상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이사야 10장 20-21절은 야웨의 신뢰와 야웨의 주권의 문제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관련하여 언급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עֲשִׂימֵנוּ ... אֵ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עֲשִׂימֵנוּ),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בָּשִׁיבֵנוּ).” 비교법과 점층법을 사용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결단을 강조한다. ‘자기를 친자’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나란히 배치하고, ‘다시’(עוּ)와 ‘진실로’(בְּאֵמֶת)라는 표현과 3개의 동사를 점층적으로 사용해(의지하지 않는다 → 의지하다 → 돌아오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온전히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특별히 ‘자기를 친자’(בְּנֵינוּ)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장한다. 이사야 12장 1-6절은 야웨의 신뢰와 야웨의 주권의 문제를 남유다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2a절). 여기에서 백성들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당시 선지자가 선포했던 ‘야웨를 신뢰하고,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인용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다. ‘나의 구원’(שׁוּעָתִי), ‘내가 신뢰하다’(אֲבִטֵן),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אֶפְרָא אֵל)라는 1인칭 표현들은 남유다 백성들 각자의 신앙적 결단을 부각한다. 4절은 이러한 고백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¹⁷ “그날에 ... 그의 행하

17 홍국평은 “46절의 감사 고백은 야웨가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이사야의 핵심 사상을 반영한다”라고 보았다. 홍국평, *윗글*, 201 참조.

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서 ‘만국’(עַמִּים)은 이방 민족을 가리킨다(참조 사 2:3; 8:9).¹⁸ 야웨의 주권적 행위가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유다 안에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본문은 ‘신뢰와 관련된 2개의 동사’(שָׁעַן, חָבַטָּ)와 ‘고이와 관련된 2개의 표현’(מָכַרָּ, עַמִּים)을 사용해 야웨 신뢰의 중요성과 야웨의 주권 범위를 열방으로 확대한다.

이사야 11장 10절과 11-16절은 야웨의 주권을 귀환과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10절은 열방의 돌아옴, 11-16절은 온 이스라엘(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돌아옴에 초점을 맞춘다.¹⁹ 이사야 11장 10절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עַמִּים)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גּוֹיִ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말한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 후손의 이상적인 왕으로 야웨의 주권을 대신할 지도자를 의미하며, ‘만민의 기치로 선다’(עַמִּים לָיִס עֹמֵד)는 표현은 그 지도자가 만민에게 정치적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²⁰ 그 결과 열방이 이러한 지침을 얻고자 이상적인 지도자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열방을 찾아가서 정치적 지침을 얻었다. 이제는 열방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עַמִּים/גּוֹיִם(아빔/고임)을 사용해 강대국의 주권과 야웨의 주권이 역전되었음을 강조한다.²¹ 이제 이사야 11장 11-16절은 야웨의 주권을 온 이스라엘(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귀환과 관련하여 언급하는데, 야웨의 주권적 행위와 온 이스라엘에 전가된 야웨의 주권을 강조한다. 야웨의 주권적 행위는 열방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행위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부각된다

18 E. Lipiński, *위글*, 177.

19 게리 스미스, 「이사야 1」 (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9), 353. 원제는 Gary V. Smith, *Isaiah 1-39*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07).

20 김희권, *위글* (2006), 310-312 참조.

21 이사야 2장 2-4절에도 열방의 모임(אֱלֹהֵי כָּל-הַגּוֹיִם, 2b 절)과 열방에 대한 야웨의 주권(רָבִים רַבִּים לְעַמִּים, 4a 절)이 강조된다.

(11-12절, 15-16절). 11-12절은 “그날에 주께서 ...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라고 말한다. 여기에 언급된 8개의 지역은 이스라엘의 동(엘람, 바벨론), 서(바다의 섬들), 남(애굽과 구스), 북(앗수르, 하만)의 전역을 의미한다.²² 어느 한 곳도 야웨의 주권에 반기를 들지 못했다는 말이다. 특히 ‘그가 열방에 기치를 세웠다’(עָמַד בְּיָמֵי, 12a) 절라는 말은 열방이 야웨의 구원 사역의 현장과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14절은 더 나아가 귀환자들에게 야웨의 주권이 전가되었음을 언급한다. 야웨가 주신 주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주변국(블레셋, 동방 백성, 에돔, 모압, 암몬)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온 이스라엘이 각기 다른 지역(8개의 지역)에서 귀환한다는 표현과 온 이스라엘이 주변국(5개의 지역)을 정복한다는 표현은 야웨의 주권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1-12장은 철저하게 야웨의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특별히 역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날에라는 표현’과 ‘고이 혹은 고이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여 야웨의 주권의 범위를 열방으로 확대하고 있다.

(2) 이사야 13-27장

이사야 13-27장은 열방의 심판에 대한 신탁(사 13-23장)과 열방 신탁을 마무리하는 부분(사 24-27장)으로 구성된다.²³ 이러한 열방 신탁의 의도는 철저

22 게리 스미스, 윗글 (2019), 353.

23 김희권은 이사야 13-27장이 열방 예언 단락으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하여 온 땅에 대한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로 마감한다고 보았다. 김희권, 윗글 (2006), 51-53. 오스왈트

하게 야웨의 주권을 부각하는 데 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이사야 13-14장은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는데, 이와 더불어 열방에 대한 야웨의 심판선언과 심판 준비에 대해 언급한다. 열방에 대한 야웨의 우주적 주권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사 13:11).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뺐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 14:26-27). ‘세상(תבל)의 심판’,²⁴ ‘온 세계(אֶרֶץ-כָּל)를 향한 경영’, ‘열방(כָּל-הַגּוֹיִם)을 향하여 편 손’이라는 3개의 표현은 야웨의 우주적 주권을 당연시한다. 게다가 ‘누가 폐하며’(מִי יַפֵּה),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מִי יִשְׁבֹּבֶה)와 같은 수사적 질문은 어떤 피조물도 그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음을 부각한다. 한마디로 온 세상 누구도 야웨의 주권에 맞설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야웨의 주권은 열방을 불러 주의 도구로 삼았다는 표현을 통해 더 강화된다(사 13:3-5). “내가 ...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곧 열국(גוֹיִם) 민족이 ... 먼 나라에서(מֵאַרְצֵי מִרְחֹק), 하늘 끝에서(מִקְצֵה הַשָּׁמַיִם)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사 13:3-5). 야웨의 심판의 도구를 묘사하기 위해 ‘열국’, ‘먼 나라’, ‘하늘 끝’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모든 열방이 야웨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열방의 심판을 통해 이러한 야웨의 주권이 강조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론의 심판이다. 바벨론은 ‘열국을 엮은 자’(חֹלֵט עַל-גּוֹיִם, 사 14:12),

는 이사야 13-27장에 대해 “선지자는 13-23장의 구체적 진술에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는 더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진술(사 24-27장)로 옮겨 간다”라고 주장하였다.” 존 오스왈트, *윗글* (2015), 507 참조.

24 תבל(테벨/세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Hans Wildberger, *Isaiah 13-27*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26 참조.

‘노하여 열방(עַמִּים)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는 자로 묘사된다(사 14:6). 바벨론에 의해 많은 나라들이 정복당하였고,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의 위세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עַמִּים(고임/열방)을 사용해 바벨론의 강력함을 부각한다. 그런데 이들의 위세를 꺾고 이들의 만행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야웨라는 것이다.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사 13:17-19). 야웨께서 메대를 동원해 바벨론을 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메대가 야웨의 도구로 언급된다. 고임(바벨론의 침략의 대상) → 바벨론(야웨의 심판의 대상) → 메대(야웨의 심판의 도구)를 열거하여 열방에 대한 야웨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최후에 대한 묘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사야 14장 3-23절의 조롱의 노래는 그의 운명을 언급한다. 바벨론 왕은 스올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지고 열방의 모든 왕들은 그를 조롱한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열방(עַמִּים)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사 14:9-10). ‘열방의 모든 왕’은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²⁵ 이들은 바벨론 왕을 보자 그의 처지를 한탄하며 조롱한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무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너도 또한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구나’(בְּמִיּוֹתַי כָּמוֹנָה), ‘너는 우리처럼 되었구나’(אֲלֵינוּ נִמְשַׁלְתָּ). 여기에서 ‘우리처럼’이라는 열방 왕들의 조롱 섞인 표현은 바벨론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야웨의 주권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야웨의 주권적 능력을 목격한 유다와 열방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날에’(בְּיוֹם הַהוּא)라는 미래적 표현과 어우러져 나타난다. 첫

25 케리 스미스, *읽글* (2019), 402.

쟁는 유다와 열방이 야웨를 신뢰하고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사야 26장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이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14절)라고 말한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יְרֵיק שְׂמֵר אֱמֻנָה)는 유다를 가리킨다.²⁶ 이사야 1장에서 유다는 ‘야웨를 거역한 족속’(2절), ‘범죄한 나라와 허물진 백성’(4절)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날에는 유다가 야웨를 신뢰하는 의로운 나라(יְרֵיק)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יְרֵיק(고이/나라)를 사용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타협 없이 야웨만을 의지하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사야 25장은 열방도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한 민족(גֹּיִם)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박한 나라들(גֹּיִם)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3절). 이사야 13-23장에 많은 열방들이 언급되었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강한 민족’과 ‘포박한 나라들’을 언급한다. 이들은 열방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열방의 대표자까지 야웨를 인정하고 그의 주권적 권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יְרֵיק(고이/나라)를 언급함으로써 야웨의 주권의 경계가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유다와 열방이 야웨께 찾아 나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다. 열방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גּוֹס)의 장대하고 준수한 ...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 시온 산에 이르리라”(사 18:7).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사 19:21). 야웨의 주권적 심판을 경험한 구스와 애굽이 야웨의 전에 찾아 나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다고 말한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섬겼다. 그러나 이제 섬김을 받던 애굽이 야웨를 의지하고 야웨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섬기는 자)

26 윗글, 569.

과 애굽(섬김의 대상, 섬기는 자)과 하나님(섬김의 대상)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야웨의 우주적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이사야 27장 13절은 유다의 귀환자들의 섬김을 언급한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사 27:13). 앗수르와 애굽에서의 귀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강대국이 무너져야 귀환이 가능한 것이다. 백성들이 귀환하여 야웨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은 야웨의 우주적 주권이 두 강대국에 임했음을 전제한다. 게다가 백성들이 야웨를 예배한다는 것은 이들 또한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13-27장은 철저하게 야웨의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그날에’와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사야 28-39장

일반적으로 이사야 28-39장(사 34-35장 제외)은 주전 701년의 산헤립의 침략 전후의 역사적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²⁷ 주전 734-733년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야웨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사야 1-12장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속해서 이사야 28-39장도 야웨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도 고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야웨의 주권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이사야 28장은 당시 지도자들이 야웨 대신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였다고 말한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מוֹת)과 언약하였고 스올(שׂוֹל)과 맹약

27 김회권, *윗글* (2006), 53-55 참조.

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사 28:14-15). ‘사망’과 ‘스올’은 다의적인 의미를 지녔지만,²⁸ 아마도 애굽과 맺은 조약이 그들을 사망과 스올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조롱으로 보인다.²⁹ 이사야 30장 1-2절은 이들이 의지했던 대상을 정확하게 밝힌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야웨에 대한 배반’과 ‘백성들의 애굽에 대한 신뢰’가 비교되어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부각된다. 먼저 야웨에 대한 배반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다’(אֵלֹהֵי מִצְרַיִם לֹא יִשְׁעוּ),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다’(אֵלֹהֵי מִצְרַיִם לֹא יִשְׁעוּ),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אֵלֹהֵי מִצְרַיִם לֹא יִשְׁעוּ)와 같은 1인칭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강조된다. 이어서 백성들의 애굽에 대한 신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러한 표현들은 야웨가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야웨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야웨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사 30:15).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אֵלֹהֵי מִצְרַיִם לֹא יִשְׁעוּ)는 표현과 ‘잠잠하고 신뢰해야 한다’(אֵלֹהֵי מִצְרַיִם לֹא יִשְׁעוּ)는 표현이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야웨에 대한 신뢰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사야 7장 4절(“삼가며(אֵלֹהֵי מִצְרַיִם) 조용하라(אֵלֹהֵי מִצְרַיִם)”)의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28 Hans Wildberger, *윗글* (2002), 38-40 참조.

29 김회권, *윗글* (2006), 532-533; 게리 스미스, *윗글* (2019), 628-630 참조.

이러한 신뢰의 문제는 주전 701년 산헤립의 침략의 위기상황에서도 계속 되었다(사 36-39장). 신뢰의 문제는 당시 백성들의 주장과 히스기야의 주장 속에 나타나는데, 특히하게도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의 입을 빌려 신뢰의 문제가 지적된다. 그는 백성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사 36:6).³⁰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אֲנִי)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אֲנִי)하면 손이 찢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אֲנִי)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방의 지도자가 훈계하는 형식을 빌려 백성들의 불신이 도를 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30여 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로 보인다. 특별히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애굽이 절대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제 이사야 36장 15-18절은 히스기야의 주장을 랍사게의 입을 빌려 소개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אֲנִי)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백성들과는 달리 히스기야가 야웨를 신뢰하고 백성들에게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한다. 3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야웨에 대한 신뢰 문제가 의로운 히스기야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야웨’와 ‘열국의 신들’(אֱלֹהֵי הַגּוֹיִם)의 비교를 통해 야웨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당시 핵심적인 문제였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고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이제 야웨의 주권의 문제는 ‘그날에’(אִתְּךָ הַיּוֹם)라는 미래적 표현과 어우러져 더욱 부각된다. 여기에서는 앗수르의 운명과 남은 자들의 운명을 확인

30 홍국평은 이 말이 “유다 왕실 내부의 친이집트파에게, 그리고 이집트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던 모든 백성에게 날리는 결정타”라고 보았다. 홍국평, *룻글* (2016), 458.

할 수 있다. 랍사게의 입을 빌려 히스기야의 신앙과 교육을 조롱했던 앓수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 31장 7-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날에는... 앓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철저하게 앓수르의 운명이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야웨의 심판에 의해 결정됨을 강조한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לֹא-אִי-בְּחַרְבּוֹ),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לֹא-אִי-בְּחַרְבּוֹ)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이 야웨에게 있음을 강조한다.³¹ 여기에서는 ‘사람의 칼’과 ‘야웨의 능력’이 암시적으로 비교되어 야웨의 주권적 능력을 드러낸다. 이제 야웨의 주권적 능력은 남은 자들의 운명을 주도한다. 야웨는 남은 자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사 28:5; 29:18-21).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사 28:5).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언급한다.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야웨를 신뢰하지 않고 이방 강대국을 신뢰했지만 야웨는 그들의 남은 자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이다. 이사야 12장은 ‘그날에 남은 자들이 주께 감사하며, 야웨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한다. 야웨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백성들의 신뢰와 감사의 내면에는 야웨의 주권적 은혜가 흐르고 있다.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은 이사야 29장 18-21절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된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31 이 표현은 이사야 30장 1절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다’ (לֹא-אִי)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다’ (לֹא-אִי)의 상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최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다.” 야웨의 주권적 개입으로 이상 사회가 실현될 것을 말한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최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의 끊어짐과 ‘못 듣는 사람’, ‘맹인’, ‘검손한 자’, ‘가난한 자’의 회복을 나란히 배치하여 야웨에게 심판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28-39장은 철저히 야웨의 주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별히 애굽과 관련된 최악의 지적과 ‘그날에’ 있을 야웨의 주도적인 회복에 대한 묘사에서 이것은 강하게 드러난다.

2) 이사야 40-55장에 나타난 야웨의 주권과 고이

이사야 40-55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백성들은 포로가 된 이유를 야웨의 무능에서 찾았다. 야웨가 마르독에게 패배하여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³² 이사야 40-55장은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야웨의 우주적 주권을 강조한다. 이사야 42장 24절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מִי־נִתָּן לְמַשָּׁפָה יְעַקֵּב),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מִי־נִתָּן ... יִשְׂרָאֵל לְבוֹיִים) 여호와가 아니시냐”(לֹא־יְהוָה, 24a절). 의문사(מִי, הֲ)를 사용해 포로가 된 이유가 야웨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도, 바벨론의 군사력이 막강해서도, 바벨론 신 마르독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서도 아니라는 것이다. 철저히 야웨의 주권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24b절은 야웨가 그렇게 결단한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에게’(אֵל),

32 오택현, 「이사야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16 참조.

‘그의 길’(דַרְכָיו), ‘그의 교훈’(תּוֹרָת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포로가 된 이유가 철저하게 야웨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이사야 1-39장의 언어로 말하면, 그 이유는 백성들이 야웨를 의지하지 않고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8장 2절은 이러한 내용을 암시한다.³³ “그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אֲנִי־קָדְשׁ),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אֲנִי־יְהוָ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기에 사용된 니팔형 동사(אֲנִי־קָדְשׁ, אֲנִי־יְהוָה)는 재귀형의 의미로 사용되어,³⁴ 백성들의 위선을 강조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며, 스스로 자신들이 야웨를 의지한다고 떠벌리고 있다는 것이다(사 48:1 참조).³⁵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이다. 아마도 선지자가 위기의 상황마다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기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예언자는 야웨의 정체성에 대한 묘사를 통해 야웨의 주권을 강조한다. 야웨의 주권적 결단으로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야웨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야 40-55장에서 언급되는 4개의 개념(유일신, 창조자, 구원자, 역사의 주)을 사용해 야웨의 주권적 능력을 강조한다.³⁶ 특별히 ‘고이’라는 단어가 4개의 개념과 어우러져 각각의 개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로 ‘유일신’ 개념을 통해 야웨의 주권적 권능을 부각한다. 야웨 외에는 도울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유일신 사상은 מִבְּלִעְדֵי(미발아다이/나 외에; 사 43:11; 44:6, 8; 45:6, 21), זולָּתֵי(출라티/나 외에; 사 45:5, 21), אֵין עוֹד(에인 오드/다른 이는

33 Marvin A. Sweeney, *윳글* (2016), 138.

34 John Goldingay and David Payn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40-55 Vol. II* (London: Bloomsbury, 2014), 124-125 참조.

35 존 골딩게이, 『이사야』 (윤성현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20), 407 참조. 원제는 John Goldingay, *Isaia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1).

36 Claus Westermann, *Isaiah 40-66*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9), 11-17 참조.

없다; 사 45:5, 6, 14, 18, 21, 22; 46:9)와 같은 표현을 통해 묘사된다. 이러한 유일신 사상은 우상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어 강조된다. 특히 우상의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해 우상(עֲבֹדָה)의 제조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된다(사 40:19-20; 42:17; 44:9-17; 45:20; 48:5). 선지자는 우상숭배가 열방의 피난민들 가운데 퍼져 있음을 지적한다. 이사야 45장 20-21절은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가지고 다니는 것’, ‘구원하지 못하는 신’으로 묘사되고, 야웨는 ‘유일신’, ‘공의를 행하는 분’, ‘구원을 베푸는 분’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열방(עַמְּוָה) 중에 피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사야서에서 עַמְּוָה(고임)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모두 가리키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⁷ 야웨는 이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야웨의 유일신 되심과 야웨가 열방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야웨가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 유일신 개념과 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야웨의 주권을 열방으로 확대한다.

둘째로 ‘창조자’ 개념을 통해 야웨의 주권적 권능을 부각한다. 야웨의 창조를 묘사하기 위해 3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בָּרָא(바라)는 16번, יָצַר(야차르)는 18번, עָשָׂה(아사)는 32번 나타난다.³⁸ 이러한 동사들은 야웨가 온 세상을 창

37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위해 게리 스미스, 윗글 (2020), 344-346; 김희권, 윗글 (2020), 270 참조.

38 이사야 40-55장에서 3개의 동사는 다음의 구절에 언급된다(בָּרָא: 사 40:26, 28; 41:20; 42:5; 43:1, 7, 15; 45:7, 12, 18; 21, 18; 22, 18; 23, 18; 24, 18; 25, 18; 26, 18; 27, 18; 28, 18; 29, 18; 30, 18; 31, 18; 32, 18; 33, 18; 34, 18; 35, 18; 36, 18; 37, 18; 38, 18; 39, 18; 40, 18; 41, 18; 42, 18; 43, 18; 44, 18; 45, 18; 46, 18; 47, 18; 48, 18; 49, 18; 50, 18; 51, 18; 52, 18; 53, 18; 54, 18; 55, 18; 56, 18; 57, 18; 58, 18; 59, 18; 60, 18; 61, 18; 62, 18; 63, 18; 64, 18; 65, 18; 66, 18; 67, 18; 68, 18; 69, 18; 70, 18; 71, 18; 72, 18; 73, 18; 74, 18; 75, 18; 76, 18; 77, 18; 78, 18; 79, 18; 80, 18; 81, 18; 82, 18; 83, 18; 84, 18; 85, 18; 86, 18; 87, 18; 88, 18; 89, 18; 90, 18; 91, 18; 92, 18; 93, 18; 94, 18; 95, 18; 96, 18; 97, 18; 98, 18; 99, 18; 100, 18; יָצַר: 사 43:1, 7, 10, 21; 44:2, 9, 10, 12, 21, 24; 45:7, 9; 21, 18; 46:11; 49:5; 54:17; עָשָׂה: 사 40:23; 41:4, 20; 42:16; 43:7, 19; 44:2, 13; 21, 15, 17, 19, 23, 24; 45:7, 9; 21, 18; 46:4, 6, 10; 48:3, 5, 11, 14; 51:13; 53:9; 54:5; 55:11).

조한 주권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창조자 개념은 열방과 연관되어 야웨의 주권을 열방으로 확대한다. 이사야 40장 12-17절은 2개의 단계를 통해 이것을 보여준다. 1단계는 의문사 נַחַּ (미/누가)를 사용해 창조자 야웨의 주권을 부각한다. “누가(נַחַּ)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뿔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נַחַּ) 지도하였으며... 그가 누구(נַחַּ)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사 40:12-14). 이러한 수사적 질문들을 사용해 야웨만이 창조자이며, 그의 창조를 어떤 피조물도 돕지 않았음을 말한다.³⁹ 2단계는 창조자 야웨의 주권을 고이로 사용해 부각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גוֹיִם)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사 40:15a),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כָּל-הַגּוֹיִם)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사 40:17). 열방을 ‘...같은’ (כְּ)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열방이 야웨의 창조물 중의 하나에 불과함을 주장하고, 심지어 무(無)와 관련된 표현들(כְּאֵין, כְּאֵפֶס, כְּחֶרֶב, כְּחֶלֶם)을 사용해 열방이 허무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것을 통해 열방은 신뢰의 존재도 섬김을 받을 존재도 아니며, 야웨만이 신뢰의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로 ‘구속자/구원자’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부각한다. 야웨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다양한 단어들 사용된다.⁴⁰ גָּאַל (가알/구속하다)은 17번, יָשַׁע (야샤/구원하다)는 8번, מוֹשִׁיעַ (모쉬아/구원자)는 5번, יְשׁוּעָה (예슈아/구원)는 6번, תְּשׁוּעָה (테슈아/구원)는 3번 나타난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 사용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야웨라는 사실을 부각한다. 이러한 구원자 개념은 열방과 연관되어 야웨의 주권을 우주적으로 확장

39 김희권, *읽글* (2020), 73-74.

40 이사야 40-55장에 구속과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גָּאַל 사 41:14; 43:1, 14; 44:6, 22, 23, 24; 47:4; 48:17, 20; 49:7, 26; 51:10; 52:3, 9; 54:5, 8; יָשַׁע 사 43:12; 45:17, 20, 22; 46:7; 47:13, 15; 49:25; מוֹשִׁיעַ 사 43:3, 11; 45:15, 21; 49:26; יְשׁוּעָה 사 49:6, 8; 51:6, 8; 52:7, 10; תְּשׁוּעָה 사 45:17; 46:13(2번)).

한다. 이것은 이사야 52장 7-10절에 잘 드러난다. 야웨의 주권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너의 하나님은 통치하신다’(יְהוָה אֱלֹהֶיךָ, 7b절), ‘야웨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יְהוָה עִמּוֹ, 9b절),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לִישׁוּבֵי יְרוּשָׁלַם, 9b절).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폐망하고 포로가 된 시온 백성들에게 야웨가 통치자와 위로자와 구속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된다. 그런데 10절에 언급된 고이는 야웨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과 연결짓는다.⁴¹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특별히 ‘열방의 목전에서’(בְּלִפְנֵי כָל-הָעוֹלָם)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יְשׁוּעַת אֱלֹהֵינוּ)이라는 표현은 열방이 야웨의 구원역사의 목격자가 된다는 말이다. 야웨의 무능으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열방까지도 야웨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역사의 주’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부각한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 야웨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삼았고, 그가 야웨의 뜻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본문을 통해 강조된다(고레스 언급: 사 44:28; 45:1; 고레스 암시: 사 41:2, 25; 43:14; 45:13; 46:11; 48:11-15).⁴² 이러한 역사의 주 개념은 열방과 연관되어 야웨의 주권을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으로 확대한다. 야웨께서 이스라엘만의 통치자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임을 부각한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2절과 45장 1절은 이러한 사상을 잘 드러낸다. 이사야 41장 2절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אִישׁ)을 일깨워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אֲרָצוֹת)을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라고 말

41 김희권, *윳글* (2020), 413 참조.

42 John L. McKenzie, *Second Isaiah*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1), LXVI-LXVII; Claus Westermann, *윳글*, 15-17; 오택현, *윳글*, 148-149 참조.

한다. 2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일깨우다’(העיר), ‘부르다’(קרא)라는 단어를 사용해 고레스가 야웨의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넘겨주다’(נתן), ‘다스리게 하다’(רדד)라는 단어를 사용해 야웨께서 고레스에게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통치권이 야웨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사야 45장 1절은 야웨의 행위 +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는 구문을 2번 반복하여 야웨의 주권을 부각한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열방들이 그의 앞에서 항복하게 하고’(החזקתי בימינו לרדד לפניו גוים),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들이 그의 앞에서 열리도록 하리라’(פתח לפניו דלתות) (מתני מלכים אפתח אתה). 1인칭 동사를 사용해 야웨의 주권적 행위를 강조하고, ‘그의 앞에’(לפניו)라는 표현을 사용해 야웨의 도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열방과 열방의 왕들이 야웨의 도구 앞에 항복하고 성문을 열었다는 말은 결국 온 세상이 야웨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고이가 이러한 강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웨의 주권의 문제는 새 일’(הרשות)이라는 미래적 표현과 어우러져 더욱 부각된다. ‘새 일’은 3번 언급된다(사 42:9; 43:19; 48:6). 이사야 48장 6절에서 야웨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끝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השמעתיך הרשות מעתה ונצרות ולא ידעתם)라고 말한다. 새 일은 야곱 집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로 묘사된다. 그러면 야웨가 행하실 은밀한 새 일은 무엇인가?⁴³ 다양하게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새 일’을 언급하는 이사야 43장 19절과 42장 9절과 관련된 단락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다. 이사야 43장 19-20절은 ‘새 일’을 명확히 밝힌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

43 김희권은 “야웨의 종이 행하는 가장 우선적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미리 동시대의 청중에게 알려주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4가지를 예로 든다. “바벨론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귀환, 이스라엘의 영적 재할복구와 갱신, 갱신된 이스라엘을 통한 세계만민의 시온 초청, 하나님의 세계만민 통치 거점으로서의 시온 승화.” 김희권, *읽글* (2020), 131 참조.

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야웨께서 행하실 ‘새 일’은 백성들의 출바벨론이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야웨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표현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인 것이다. 창조자 야웨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한 예비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야웨의 주권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이사야 42장 1-9절도 ‘새 일’을 명확히 밝힌다. 이 단락은 종의 노래로 불리는데,⁴⁴ 여기에서 종은 이상화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야웨는 종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부은 자’라고 부르며, 그에게 사명을 부여한다. 특별히 이러한 사명이 고임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וְיָצִיא לְנוֹרָא וְיִצְדֵּק),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 (וְיִצְדֵּק לְאוֹרֵי אֲרָצוֹת). 야웨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에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고이를 사용해 야웨의 주권을 온 세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야웨가 이상화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이방을 구원하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이방인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이사야 40-55장은 포로의 상황과 관련하여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야웨의 정체성과 관련된 4개의 개념과 야웨께서 행하실 출바벨론 및 이방의 구원과 관련된 ‘새 일’을 통해 야웨의 우주적 주권을 강화한다.

44 자세한 논의를 위해 Joseph Blenkinsopp, *Isaiah 40-5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76-81; John L. McKenzie, 원글, XXXVIII-XLII 참조.

3) 이사야 56-66장에 나타난 야웨의 주권과 고이

이사야 1-39장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산헤립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위기의 상황에서 강조된 야웨 신뢰의 문제는 이사야 40-55장의 바벨론 포로기 동안 야웨의 정체성 문제로 이어졌다. 이제 이사야 56-66장은 구원지연의 문제로 한 번 더 야웨의 주권적 능력과 야웨 신뢰의 중요성을 언급하게 되었다. 여전히 야웨의 주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구원지연의 문제는 이사야 59장과 63-64장의 공동체 탄원에서 지적되고 있다.⁴⁵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사 59:1). “우리가 곱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사 59:11).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사 64:12a[MT 64:11a]). 이처럼 귀환 공동체는 구원지연의 문제로 야웨의 주권적 권능에 의문을 품었다. ‘야웨의 손이 짧다’, ‘그의 귀가 둔하다.’ 게다가 야웨의 의도를 의심하였다.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이러한 상황에서 야웨는 구원이 지연되는 이유가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명확히 한다. “오직 너희 죄악(חַטֹּאתַי)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חַטֹּאתַי)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 59:2). 야웨의 무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죄로 인해 구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지연의 문제는 우상을 신뢰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참조 사 57:3-13; 65:1-16; 66:17).⁴⁶ 야웨가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

45 김래용, “이사야 56-66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2.

46 이 당시 돼지고기 제물 사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윤경, “이사야 66장의 하례담(חֲרִיבִים) 연구”, 『구약논단』 79집 (2021년 3월), 228-230 참조.

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사 57:11b-13). 특별히 ‘내가 모은 우상들’(קְבוּצוֹתַי)과 ‘나야웨를 의뢰하는 자’(בְּיִשְׂרָאֵל)를 나란히 배치하고, 반어적 표현 즉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יִשְׂאָרוּחַ יִקְחָהֶבֶל)와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יִתְחַלְּצוּן וְיִרְשׁ הַר־קְדְּשִׁי)라는 표현을 배치하여 우상의 허무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웨의 주권적 권능을 부각한다. 이처럼 구원지연의 문제와 우상숭배의 문제는 야웨의 주권에 대한 이슈가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야웨의 주권은 이방인 수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확대된다.⁴⁷ 이사야 1-39장과 40-55장에서 고이와 연결되어 야웨의 주권이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확대된 것을 살펴보았다. 이사야 56-66장에서는 특별히 이방인 수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야웨의 주권이 열방으로 확대된다. 야웨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사 57:13)고 말하였다. ‘나를 의뢰하는 자’를 제3이사야는 이방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방인도 야웨를 의뢰하면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 56장 6-7절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여호와와 연합하여(לָוֶה) 그를 섬기며(שָׁמַר)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אָהַב) 그의 종이 되며(הָיָה) 안식일을 지켜(שָׁמַר)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חָזַק) 이방인(בְּנֵי הַגּוֹיִם)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בִּי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חָמַד)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רָצוֹן).” 연합, 섬김, 사랑, 종이 됨, 안식일 준수, 언약 준수를 통해 야웨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제시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47 소형근, “역대기 역사서에 나타난 이방인 이해”,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58-177; 이희학, “느헤미야와 포로 후기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와 복구’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7집 (2020년 9월), 111-125 참조.

야웨의 성산으로 나아가 야웨의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주의적-포용주의적 태도는 야웨의 주권을 열방으로 확대한다.⁴⁸

야웨의 주권의 문제는 ‘새 하늘과 새 땅’ (שָׁמַיִם וָאָרֶץ הַחֲדָשִׁים)이라는 미래적 표현과 어우러져 더욱 부각 된다. 이사야 65장 17-25절에서 야웨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면서 그 안에서 성취될 일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특히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다룬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사 65:18). 주전 8세기 앗수르의 침략과 간섭, 주전 6세기 바벨론의 침략과 통치, 그리고 주전 6세기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와 간섭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야웨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이사야 60-62장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이사야 65장 16b-25절이 이사야 60-62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한때 이 두 개의 본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보았다.⁴⁹ 실제로 이들은 야웨의 동일한 약속을 다룬다.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고이가 사용되어 야웨의 주권을 열방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로 시온이 온전히 회복된다. 강대국의 군화에 짓밟혔던 시온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사 60:2).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리니”(사 62:4). 시온은 야웨가 임하는 곳이며, 야웨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다시는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라 불리지 않고 험시바와 빨

48 포로기 이후의 작품인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오히려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희권, *윳글* (2020), 503 참조.

49 Claus Westermann, *윳글*, 411.

라로 불린다는 것이다. 반어적 의미의 표현을 배치해 과거에는 ‘버림받은 자’(עֲזוּבָה)와 ‘황무지’(שְׂמֹמָה)로 불렸지만, 이제는 헵시바(הַחֶפְצִיבָּ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와 빨라(הַעֲוָלָה; ‘혼인된 여자’)로 불린다는 것이다.⁵⁰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은 신부 시온이 이제는 신랑 되신 야웨의 아내가 되어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고이가 사용되어 이러한 야웨의 주권적 행위를 열방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방 나라들(גּוֹיִם)이 네 공의를 못 왕(מֶלֶךְ-מְלִכֵּי)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사 62:2; 참조 사 66:18-19). 과거에 열방은 시온의 멸망을 목격하며, 그것이 야웨의 무능에 기인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열방의 목격을 언급함으로써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야웨의 주권적 권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시온 백성이 온전한 회복의 주체가 된다. 회복의 출발점은 귀환이다. “우리가 다(כָּל)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בְּנֵי)은 먼 곳에서(מִמְרוֹחַי) 오겠고 네 딸들(בָּנוֹתַי)은 안기어 올 것이라”(사 60:4). 여기에서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은 이스라엘 지손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 모여’와 ‘먼 곳에서’라는 표현은 포로들의 온전한 귀환을 의미한다. 포로가 된 모든 이스라엘이 빠짐없이 다 귀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귀환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야웨는 귀환자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גְּבוּיִם גּוֹיִם)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사 60:21-22).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후손이 풍성해지고, 강대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회복의 배후에 야웨의 주권적 개입이 있다는 것이다. “나 야웨가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אֲנִי יְהוָה ... אֲנִי יְהוָה). ‘나 야웨’와 ‘속히 이루리라’는 표현을 통해 야웨의 주도적인 역할

50 김회권, 윗글 (2020), 613.

을 강조한다. 그런데 야웨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귀환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약속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בְּעַמֵּי)과 나라(הַמְּמַלְכָה)는 과멸되리니 그 백성들(בְּעַמֵּי)은 반드시 진멸되리라”(사 60:12). 열방이 귀환자들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야웨의 약속인 것이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열방을 섬겼지만, 이제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다. 야웨의 주권적 권능으로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셋째로 시온의 회복에 이방 민족이 동참한다. “나라들(בְּעַמֵּי)은 네 빛으로, 왕들(בְּמַלְכֵי)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3). 이것은 영적 중심지인 시온/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몰려온다는 말이다(참조 사 2:1-4).⁵¹ 한마디로 시온의 회복에 열방이 동참한다는 말이다. 야웨의 주권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방은 어떻게 동참하는가? (1) 열방이 물질로 시온의 회복에 동참한다. 이사야 60장 5절은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이방 나라들(בְּעַמֵּי)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고 말한다(참조 사 60:11; 61:6).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성읍이 불타고 많은 재물이 약탈을 당하였는데, 이제 열방이 그것을 충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시온 백성들은 기쁜 빛을 내며 놀라게 된다. (2) 열방이 야웨의 예배에 동참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בְּכָל-אֶרֶץ)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사 66:20-21; 참조 사 60:6-7). ‘너희 모든 형제’(בְּכָל-אֶרֶץ)는 이방의 회심자를 의미한다.⁵² 따라서

51 윗글, 566-568 참조.

52 게리 스미스, 윗글 (2020), 944; 존 오스왈트, 윗글 (2016), 833-834; P. A. Smith, *Rhetoric and Redaction in Trito-Isaiah* (Leiden: Brill, 1995), 168; Elizabeth Achtemeier, *The Community and Message of Isaiah* 56-66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147-149; Roger N. Whybray, *Isaiah 40-66*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1), 291-292. 이들과는 달리 ‘너희 모든 형제’를 유대 백성으로 보는 학자

이방 민족이 그들의 회심한 형제들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예물로 드리고, 야웨는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맡긴다는 말이다. ‘모든 나라에서’ (מִכָּל-אֶרֶץ)라는 표현을 사용해 온 세상 민족이 야웨께 다 나아와 그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야웨께서 이방인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고이가 사용되어 야웨의 주권이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으로 확대된다.

3. 결론

이사야 1-66장은 3개의 다른 시대적 배경(주전 8세기, 사 1-39장; 포로기, 사 40-55장; 포로기 이후, 56-66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통으로 야웨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야웨의 주권은 역사적 위기 상황, 미래의 비전과 관련된 표현,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 묘사되고 강조된다. 한마디로 각각의 예언서가 현재의 역사적 위기 상황과 미래의 비전을 기술하면서 야웨의 주권을 언급하는데, 여기에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을 추가하여 야웨를 온 세상의 주권자로 확장한다.

이사야 1-39장에서 야웨의 주권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산헤립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위기의 상황, ‘그날에’라는 미래의 비전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들과 어우러져 강조된다. 이사야 1-12장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의 배경 속에서 야웨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특별히 국내외적인 피조물에 대한 백성들의 의지를 비판하면서 ‘그날에’ 온

들도 있다. Brooks Schramm, *The Opponents of Third Isaiah: Reconstructing the Cultic History of the Restoration*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71-173; Marvin A. Sweeney, *윳글* (2015), 384; 김희권, *윳글* (2020), 697-698 참조.

이스라엘과 열방이 야웨께 돌아올 것이며, 남은 자들이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 13-27장은 열방에 대한 야웨의 우주적 주권을 강조하는데, 야웨가 열방에 대한 경영권과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며, 강대국 바벨론도 야웨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날에’ 유다와 열방이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야웨께 나아와 예물을 드린다고 말한다. 이사야 28-39장은 산헤립의 침략의 전후의 배경 속에서 야웨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특별히 애굽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문제를 랍사게의 입을 빌려 지적하고 있으며, ‘그날에’ 야웨의 주권적 권능으로 앗수르는 폐망하고, 남은 자들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 40-55장에서 야웨의 주권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위기의 상황, ‘새 일’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표현, 그리고 고이 및 고이와 관련된 표현들과 어우러져 강조된다. 특별히 이사야 40-55장은 야웨의 무능력으로 인해 백성들이 포로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야웨의 정체성과 관련된 4개의 개념(유일신, 창조자, 구원자, 역사의 주)과 출바벨론과 이방의 구원을 제시하는 ‘새 일’을 통해 야웨의 우주적 주권을 강조한다. 이사야 56-66장에서 야웨의 주권과 관련된 논쟁은 포로기 이후 구원지연의 문제 및 이방인 수용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별히 이사야 56-66장은 구원지연이 야웨의 무능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밝히면서, 이방인까지도 야웨의 주권을 인정하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비전 제시를 통해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성취하고 이방 민족의 구원을 수용하는 야웨가 우주적 주권자임을 강조한다.

4. 참고문헌

- 김래용, “이사야 56-66장에 나타난 거룩과 정의”,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1-40.
- 김희권,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희권, 「이사야: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이사야 40-66장」 (서울: 복 있는 사람, 2020).
- 게리 스미스, 「이사야 1」 (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9), 353. 원제 Smith, Gary V., *Isaiah 1-39*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07).
- 게리 스미스, 「이사야 2」 (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원제 Smith, Gary V., *Isaiah 40-66*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09).
- 마빈 A. 스위니, 「예언서」 (홍국평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Sweeney, Marvin A., *The Prophe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소형근, “역대기 역사서에 나타난 이방인 이해”,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58-177.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이사야 I」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 에드워드 J. 영, 「이사야서 주석 I」 (장도선·정일오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원제 Young, Edward J., *The Book of Isaiah Vol. 1*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65).
- 오택현, 「이사야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 이윤경, “이사야 66장의 하레딤(חֲרִידִים) 연구”, 「구약논단」 79집 (2021년 3월), 214-243.
- 이희학, “느헤미야와 포로 후기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와 복구’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7집 (2020년 9월), 106-140.
- 존 골딩게이, 「이사야」 (윤성현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20). 원제 Goldingay, John, *Isaia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1).
- 존 오스왈트, 「이사야 I」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원제 Oswalt, Joh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1-39*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존 오스왈트, 「이사야 II」 (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원제 Oswalt, Joh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 존 D. W. 와츠, 「이사야 1-33」 (강철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2). 원제 Watts, John D. W., *Isaiah 1-33*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5).
- 홍국평,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홍성혁, “이사야 6장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구약논단」 31집 (2009년 3월), 137-154.
- Achtemeier, Elizabeth, *The Community and Message of Isaiah 56-66*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 Blenkinsopp, Joseph, *Isaiah 40-5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 Block, D. I., “Nations”, Geoffrey W. Bromiley et al.(ed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3*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492-496.
- Clements, Ronald E., “גוֹי” *gōi*”,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7), 426-433.
- Goldingay John and David Payn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40-55 Vol. II* (London: Bloomsbury, 2014).
- Hamlin, E. J., “Nations”, George Arthur Buttrick(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515-523.
- Lipiński, E., “עַם” *am*”,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163-177.
- McKenzie, John L., *Second Isaiah*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1).
- Seitz, Christopher R., *Isaiah 1-39*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3).
- Smith, P. A., *Rhetoric and Redaction in Trito-Isaiah* (Leiden: Brill, 1995).
- Schramm, Brooks, *The Opponents of Third Isaiah: Reconstructing the Cultic History of*

- the Restoration*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Sweeney, Marvin A., *Isaiah 40-66*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 Westermann, Claus, *Isaiah 40-66*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9).
- Whybray, Roger N., *Isaiah 40-66*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1).
- Wildberger, Hans, *Isaiah 1-1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Wildberger, Hans, *Isaiah 13-27*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Wildberger, Hans, *Isaiah 28-39*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검색어

야웨의 주권

고이

이사야 1-39

이사야 40-55장

이사야 56-66장

Yahweh's Sovereignty and the *Gôî* in the Book of Isaiah

Rae-Yong Kim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considers how Yahweh's sovereignty is highlighted in Isaiah 1-66. I divide the book of Isaiah into three parts and examine the background of each part, the texts presenting a vision for the future in each, and the *gôî* (“[foreign] nation” or “nations”) or expressions associated with the *gôî* in each part.

Three distinct time periods serve as the context for different parts of Isaiah 1-66 (8th century BCE, chs. 1-39; Babylon exilic period, chs. 40-55; the post exilic period, chs. 56-66) but there is a focus on Yahweh's sovereignty throughout. In the three parts, Yahweh's sovereignty is described and emphasized through historical crisis situations, future expressions, and the *gôî* or expressions related

to the *gôl*. In short, each prophecy refers to Yahweh's sovereignty, describing the current crisis, presenting a vision of the future, and adding expressions related to the *gôl* to expand Yahweh's sovereignty over the universe.

Isaiah 1-39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ust in Yahweh in the context of the Syrian-Ephraimite War and the invasion of Sennacherib, saying that the nations and all Israel will recognize Yahweh's sovereignty over the world and return to give him gifts. Isaiah 40-55 insists that God's people had not been taken prisoner by the defeat of Marduk, and instead emphasizes Yahweh's cosmic sovereignty through four concepts related to Yahweh's identity (the only God, creator, savior, the Lord of history) and the "new work" related to the salvation of foreigners and the escape from Babylon. Isaiah 56-66 emphasizes Yahweh's sovereignty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the delay in salvation and the acceptance of foreigners in the post-exilic period. In particular, it underscores that the delay in salvation was not a result of Yahweh's incompetence and indifference, but was because of the sins of the people, and that even foreigners could be saved if they obeyed Yahweh. In addition to the complete recovery of Zion, Yahweh strengthens his cosmic sovereignty through the presentation of a new heavens and a new earth in which the salvation of the foreign nations will be completed.

This argument contributes to an integrative,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three parts in the book of Isaiah.

Keywords

Yahweh's Sovereignty

gôl

Isaiah 1-39

Isaiah 40-55

Isaiah 56-66

- 투고일: 2021년 4월 15일
- 심사일: 2021년 5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8일